interiors

출현과 소멸에 대한 미묘한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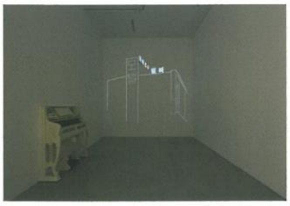
August , 2016

출현과 소멸에 대한 미묘한 저항

유명한 무명 Wellknown Unknown

문의 국제갤러리 (02)735-8449 www.kukjegallery.com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흔히 유명한 무명이라 불린다. 생전에 자신이 알려지지 않도록 '내 작품을 불태워 달라'고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유명한 무명' 展은 대중에게 회자되기가 무섭게 잊혀져버리는 '유명'과 '무명'에 대한 역설적인 현상에 주목했다. 전시에 초대된 7명의 작가는 각기 다른 관점을 통해 출현과 소멸, 등장과 은둔, 유명과 무명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전시장에는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시도와 입체적인 작품들이 펼쳐졌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영나는 자신이 참여했던 전시 이미지들을 재조합하여 시각 요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으며 남화연은 포스트 네이처와 포스트 휴먼 시대를 예고하는 듯한 흑백의 거대한 백합조각을 선보였다. 크리에이터스 그룹 베리띵즈는 자연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패션, 리빙, 디자인 그리고 아트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가치들을 한 자리에 모아 폭넓은 아카이빙을 표방하는 작업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전시장에서는 청각적 재연과 시각적 재현의 절묘한 결합이 엿보이는 작품, 현실 세계를 스크린 속으로 백업하는 비디오 작업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유명한 무명'에서 작품들의 공통분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묘한 저항이 담긴 작가들의 작업은 알려지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리는 현세대의 딜레마와 감수성을 자극했다. 관객들은 작가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과 그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현대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유명인과 무명인에 대해 반추해볼 수 있었다.